

첫 학교 첫 등교 첫 걸음



봄이다. 봄의 상징 중 하나는 꽃이다.
이은상이 쓴 시조 '봄 처녀'에서도 봄 처녀는 새 풀 옷을 입고,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을 신고,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는 시기도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꽃들이 이렇진대 하물며 사람이야.

학교에는 참 많은 다른 학생들이 어울려 지내는 곳이다.
조금 늦게 깨우치는 학생도 있고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도 있게 마련이다.
이 '다름'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일은
더불어 사는 사회인을 육성하는 교육의 본질 중 하나다.

글이나 말이 아닌 그림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게 더 편한
김도은의 이야기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가 그린 그림을 펼쳐 놓고 함께 보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관련기사 4~7면>

이런 서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늘 힘들고 조심스럽게 마련이다.
“고작 20대에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술회했던
어느 퇴직 교사의 고백이 뒷전을 두들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자칫 어느 학생의 일생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
4년 차 한 교사의 고백은 그래서 찬찬히 읽어볼 만하다. <관련기사 8~11면>

목차

2026년 4월 | 111호

발행일

2026년 4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055-278-1788)

편집인

홍보담당관 박한규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최연희

주무관 김아경·김문영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큰그림

미래를 꿈꾸다

04 요즘, 아이
그림으로 대화하는 작가
용남중학교 김도은 학생

08 요즘, 교육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김해 봉명중 윤준일 교사

12 요즘, 학교
2026년 신설된 경남의 학교들
100년의 미래를 꿈꿉니다

16 즐겁지 아니한家
두 언어로 사람을 잇는 아이

가치를 만나다

20 지금, 경남교육
2026년 3월 전면시행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24 진로진학 나침반
나에게 맞는 대입전형
살펴보고 준비하기

26 아이 안전
자전거와 픽시자전거를 아시나요?

30 경남교육 체험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재미를 더하다

34 PLAY 경남
경남의 라이브 공연장

36 경남교육 기네스
경남 도서관의 최초와 최고 기록

38 힐링필링 교육명소
밀양에서 배우는 네 가지 장면

42 학교폭력예방 웹툰

정보를 즐기다

44 우리말 톡톡
빛나는 화면 속에서
길을 찾는 아이들

46 마음상담소
초등 입학 후 또래 관계
보호자의 역할은?

48 경남교육 캘린더
50 **도정 소식**
52 **독자 이벤트 및 퀴즈**





사천 용남중학교 교실 한쪽에는 색이 가득한 그림들이 놓여 있다. 동물이 우주를 여행하고, 당근을 먹던 말
이 야구를 하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그 세계에서는 모두 자연스럽다. 이 그림들
을 그린 주인공, 바로 용남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은 학생이다. 김도은 학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
지고 있다. 말로 자신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그러하
듯,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지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깊이 몰입하며 세
밀한 관찰력과 독창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은 학생에게 그 대상은 바로 '그림'이다. 도은 학생은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종이 위에 동
물을 그리고, 상상의 친구들을 만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에게 그림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언어다. 도은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먼저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의 소개는 짧았지만 분명했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
는 학생의 목소리였다.



상상 속 친구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일

그림으로 대화하는 작가,
용남중학교 김도은 학생

#1 상상 속 친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최근 김도은 학생은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장을 찾
은 관람객들은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동물들, 상상의
공간을 여행하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시를 준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그는 전시장 풍경부터 떠올
렸다.

“전시장에 제 그림들이 걸리니까 설레고 두근거렸어요. 제 상
상 속 그림 친구들이 세상 밖으로 놀러 온 것 같아 행복했어요.”

도은이에게 그림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
내온 존재들이다. 종이 위에서 태어나고, 색을 입고, 마침내
벽에 걸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친구들. 그 시작은 아주 자연
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예쁜 마음들이 자라났어요.”

그림은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이었다.

#2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세계

김도는 학생의 그림에는 동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동물들과는 조금 다르다. 야구를 하기도 하고, 우주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현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대신, 상상의 법칙을 따른다.

“동물을 좋아하고, 표정과 행동을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역시 그런 상상에서 시작됐다. 2026년을 맞아 그린 ‘붉은 말’ 그림이다. 마치 이습우화 속 주인공 같은 말의 모습은 현실에서는 이어질 수 없는 장면들이지만, 그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런 도은 학생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 전시장에서 이 그림 앞에 오래 머무는 관람객이 유난히 많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보는 사람도 있었고,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도은 학생의 그림은 보는 사람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무엇이 특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익숙한 동물의 모습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붙잡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3 그림으로 이어지는 관계

학교에서 그의 그림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친구들은 그림을 보고 재미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은 그의 작품을 응원한다. 그림을 통해 도은 학생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다.

“그림을 보고 재미있다고 말해주시거나 잘 그린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특히 학교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에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관람객이 되어 그의 그림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든든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세계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 그것은 작가로서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4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길을 그려가는 일

전시를 경험하며 그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 더 큰 캔버스에 도전하고, 새로운 색을 사용하며 표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곁에서 이를 지켜본 부모님 역시, 그림이 아이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지금은 예전보다 큰 캔버스에 새로운 색과 표현들을 배우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즐거움과 자신감이 성장했다.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

#5 그림은,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친구

도은 학생의 꿈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림 작가가 되는 것이다. 말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설명보다 먼저 웃음과 궁금증을 불러오는 것. 그림을 통해 도은 학생이 그리고 싶은 미래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도은 학생은 앞으로도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다. 아직 종이에 옮기지 못한 장면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를 기다리는 도은 학생의 얼굴에 벌써부터 설렘이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림이 어떤 존재인지 묻자, 어떤 때보다 씩씩하게 답했다.

“그림은 나를 웃게 해주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친구예요.”

교실에 남아 있던 색들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색들 위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김도는 학생은 오늘도 그림을 그린다. 상상 속 친구들이, 또 한 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전

- 기간 2026. 4. 20.(월) ~ 4. 30.(목)
- 장소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갤러리홀
- 참여 작가 사천 용남중학교 김도은, 창원천광학교 김다민·이정환 학생

아이들과 함께

교직 4년 차
윤준일 교사 이야기



아이들만 성장통을 겪는 건 아니다. 교사에게도 성장통은 있다. 올해로 교직 4년 차. 봉명중학교 윤준일 교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다. “아직 성장 중인 교사입니다.” 처음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새내기 교사였지만, 시간은 그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완벽한 교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습니다

↓
*

어떻게 교사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윤준일 교사의 어릴 적 꿈은 교사가 아니었다. 진학하고 싶었던 전공도 교직과는 거리가 있었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교단에 서게 됐다.

💬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 부족했고, 실수투성이였던 것 같아요.

교사로서 사명감도 준비도 부족했던 새내기 교사 시절. 수업보다 힘든 건 아이들의 생활지도였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만나야 하는 교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각자의 성향과 배경, 기질이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자신이 학창 시절에 경험한 학교와 지금의 학생 세대는 분명히 달랐다. 아이들을 이해할 정보도, 경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라는 이름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민은 멈춤이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의 출발점에 가까웠다.

동료 교사에게서 배웠습니다

수업도, 생활지도도, 관계 맺기도 쉽지 않았던 시간. 그의 변화는 봉명중학교로 오면서 조금씩 시작됐다.

💬 봉명중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동료성’이에요. 혼자 고민을 끌어안고 있기보다 함께 나누다 보니 방향도 보이고,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 생활지도를 함께 고민하고,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며 피드백을 나누는 문화. 혼자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됐다. 특히, 수업 방식에서 변화가 컸다. 교직 초기에는 책상을 붙여 놓으면 모둠수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둠이 실제로 ‘기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다. 역할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고민하는 수업. 연수와 동료 교사의 수업 나눔 속에서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교직 4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다사다난. 아이들을 만나며 웃을 일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는 날도 적지 않았다. 보람과 좌절이 하루 안에 동시에 찾아오는 날도 있었다.

💬 어떤 날은 ‘이 직업,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4년은 흔들리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가장 큰 변화이다.

💬 아이를 어른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기준 삼아 아이의 마음을 가늠해 본다. 수업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정해진 틀 안에서 무난하게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매번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한다. 수업을 다시 설계하고, 방식을 바꾸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교직은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라 계속 다시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배워가는 중이다.



02

- 01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윤준일 교사
- 02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 03 교재를 보며 학습을 지도하는 장면
- 04 교실에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윤준일 교사

좋은 교사는 조력자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 중이다. 미숙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 준비를 곁에서 돕는 사람이 교사라고 그는 믿는다.

💬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게 교사 아닐까요.

그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정답을 대신 주는 사람이 아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곁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10년 뒤 자신이 이렇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



04

💬 어떤 학생에게는 고마운 선생님이로, 또 다른 학생에게는 잔소리 많은 선생님이로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관심한 교사로 기억되기는 싫어요.

아이를 향한 한마디가, 그 순간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더라도 언젠가는 ‘관심’이었다고 떠올려주길 바란다.

아직도 배우는 중

올해로 교직 생활 4년 차. 교사는 완성형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직업이라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교사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어떻게 곁에 설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오늘도 교실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01



2026년 신설된 경남의 학교들

100년의 미래를 꿈꿉니다

2026년 3월. 경상남도교육청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에 공립 신설 학교 6곳을 개교한다. 대부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 인근이다. 공동주택 개발과 혁신도시 확장으로 인구가 이동한 자리.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교실도 필요했다. 이번 신설은 단순히 학교를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과밀학급을 줄이고, 통학 시간을 단축하며 학군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다.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는 결정이다. 통학 시간이 줄어들면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달라진다. 학교는 그렇게 아이들의 삶의 리듬을 바꾼다.

과밀을 줄이고,
여유를 설계하다

창원에는 북면중학교(15학급·430명), 진해중학교(32학급·852명), 김해에는 내덕초등학교(43학급·1172명), 거제에는 거제상문중학교(34학급·966명), 그리고 양산에는 사송고등학교(34학급·924명)가 문을 연다. 그리고 진주시 가좌동에 금빛초등학교·금곡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서부 경남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로, 초등 25학급(506명), 중등 13학급(313명) 규모다. 도내 최초로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9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육관·시청각실 등 시설을 공동 활용한다. 교육의 연속성과 예산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모델이다. 이는 경남교육이 단순히 학교를 짓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방식'까지 새롭게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학년도 신설 학교 현황



현황 안내

지역	학교명	학급 수(특, 유)	학생 수
창원	북면중학교	15(0, 0)	430명
창원	진해중학교	32(2, 0)	852명
김해	내덕초등학교	43(1, 0)	1172명
진주	금빛초등학교(통합)	25(1, 0)	506명
	금곡중학교(통합)	13(1, 0)	313명
양산	사송고등학교	34(1, 0)	924명
거제	거제상문중학교	34(1, 0)	966명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사송고등학교

양산 사송고는 사송신도시 학군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먼저 들어섰고, 고등학교는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설립이 확정됐다. 양산은 전국에서도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학생들은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고, 학군 정상화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도 컸다. 사송고는 그렇게 신도시 학군 완성, 과밀 해소, 주민 요구 반영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신설 학교는 기대만큼 부담도 크다. 입지 여건으로 인해 초기 정원 미달 가능성, 새로 모인 교직원들의 팀워크 형성, ‘신도시 첫 고등학교’라는 상징성까지. 하지만 사송고는 이 시기를 ‘신뢰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사송고등학교 전경



사송고등학교 중앙 연결 통로가 이어진 전경

첫 등교하는 날

3월 3일 첫 등교가 시작된 날. 아직 교복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단정한 사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들어왔다.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오는 학생도 있었고, 조용히 긴장한 얼굴로 교문을 지나가는 학생도 있었다. 같은 ‘첫 등교’였지만 표정과 걸음은 모두 달랐다. 입구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던 교사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환영보다 안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며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함께할 거야’라는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의 첫 발걸음이 조심스럽든 씩씩하든, 모두가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사송고등학교가 내세우는 교육 방향은 분명하다.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질문이 오가고 생각이 확장되는 수업으로, 암기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토론, 체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AI·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이다. 단순히 기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융합 교과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을 소비하는 학생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학생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쾌적하게 설계된 교실과 다양한 학습 공간은 이러한 교육철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사송고는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는 신도시형 고등학교다.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

사송고 설립은 주민 서명운동과 지속적인 요구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사송고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교육 거점이다. 학교를 넘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부모 참여가 중요하다.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한 열린 구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신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로 만들고 싶다.

“학부모들이 믿고 보내는 학교,
지역민이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경남의 신설학교는 지역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전략이다. 도시가 커질 때, 학교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준비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에 아이들이 있다.

교문 앞 복도



교문 왼쪽 복도



교문 앞 복도



체육관



두 언어로 사람을 잇는 아이

양산 보광중 1학년
이선빈 학생 가족 이야기



“쭈리업쑤어.”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다. 또렷한 발음으로 인사를 건네던 이선빈 학생은 작년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발표 주제는 ‘두 언어로 꿈꾸는 내일’.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던 무대 위의 모습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하지만 그 당당한 발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자란 시간,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걸어온 가족의 시간이 있었다.



말하기대회 현장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 모습



캄보디아에서 온 아이, 한국에서 자라는 꿈

선빈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캄보디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생활했고, 한국에 온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낯선 교실, 빠른 말투, 다른 문화.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학교의 이중언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스로 두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 애썼다. 그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경남 대표로 출전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는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두 문화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발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언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언어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선빈이가 힘주어 말한 그 문장은 당시 초등학생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다.





01

“우리 가족은 에너지입니다”

가족을 소개해달라는 말에 선빈이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웃음이 나는 존재. 선빈이에게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아버지 이원웅 씨, 요즘 한국어 공부에 열심인 캄보디아인 어머니 던나리 씨, 그리고 첫째 선빈이와 초등학교 5학년 동생 재윤, 유치원생 도후까지. 다섯 식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응원단이다. 그리고 이선빈 학생의 성장 뒤에는 부모의 일관된 태도가 있었다.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가장 자주 건네는 말도 단순하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나는 할 수 있다.”

특별한 사교육보다 일상의 문장이 먼저였다. 틀려도 다시 말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자신 있게 표현해보는 연



02

습.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에서도 ‘완벽함’보다 ‘자신감’을 먼저 가르쳤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옆에서 묵묵하게 선빈이를 지지해주는 가장 큰 응원자다. 작년 대회 발표를 준비할 때도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구해주고, 연습을 지켜보며 끝까지 힘을 보탰다. 아버지도 함께 공부하며 언어를 다듬어주었다. 이 가족의 방식은 늘 같았다. 혼자 세우지 않고, 함께 걷는다. 부모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도 성적표가 아니다. 선빈이가 두 나라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 문화가 다른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웃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아이가 두 세계를 편안히 품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 무엇보다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한 상에 담긴 두 문화

선빈이네 식탁에는 두 나라의 시간이 함께 오른다. 설날 아침, 떡국 대신 어머니가 만든 캄보디아 쌀국수를 나눠 먹었던 날처럼. 누군가의 문화를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것을 그대로 놓는다. 집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려 노력하지만, 뜻이 막히면 언제든 캄보디아어가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틀리는 언어가 아니라, 내 가족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래서 대화의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대신 더 끈끈하다. 가족끼리 지켜온 약속도 있다. 생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보내기. 작은 케이크라도 꼭 나누기. 바쁜 날이어도 서로의 하루를 묻기. 그런 반복이 다섯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선빈이의 목표는 앞으로 두 언어를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이다. 거기에 부모의 바람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두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장점을 살려 훌륭한 외교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선빈이는 이미 작은 외교관처럼 보인다. 다른 문화로 살아온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을 전하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14살 선빈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일지도 모른다.

가족은 나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선빈이의 말처럼 그의 도전은 늘 가족과 함께였다. 틀려도 다시 해보라고 말해주는 부모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는 형제들 덕분에 ‘잘 말하는 법’보다 ‘끝까지 듣는 법’, ‘다름을 설명하는 법’,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가족의 단단한 지지 안에서 꿈도 조금씩 자라고 있다. 두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일. 그 길을 향해 선빈이는 오늘도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 01 어머니와 함께 인터뷰 중인 이선빈 학생
- 02 전국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동상 수상 후 가족과 기념촬영
- 03 캄보디아 학교 행사에서 상장을 받은 이선빈 학생
- 04 캄보디아 학교 시상식 후 어머니와 기념사진



03



04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과거의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웠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원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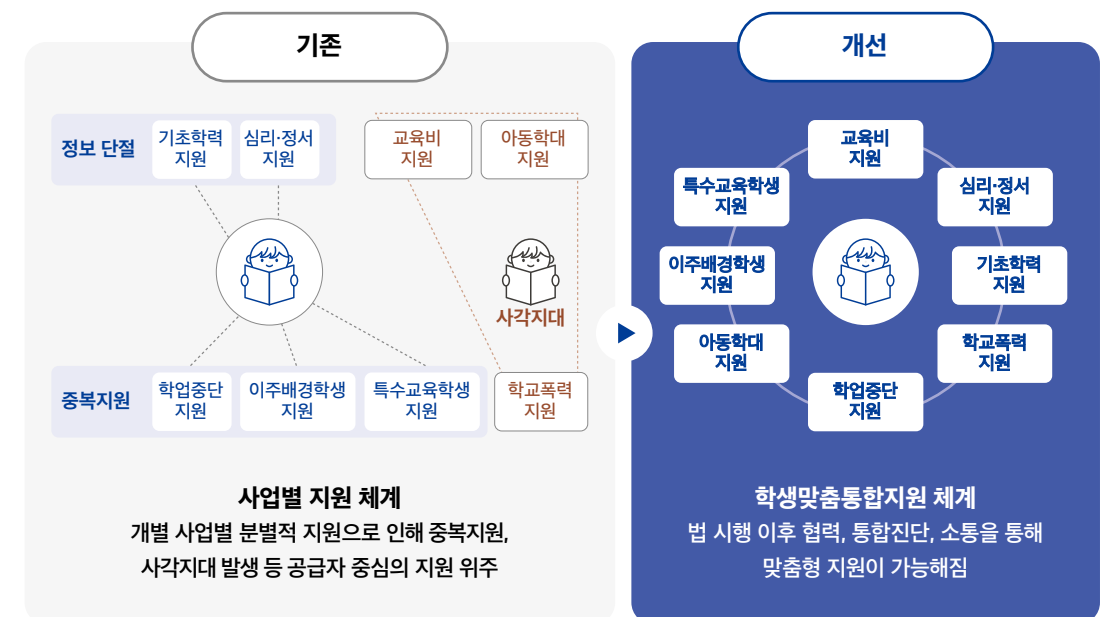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의미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영역 학업·진로, 심리·정서, 건강·안전, 복지지원

학생 지원의 현재와 미래



왜, 지금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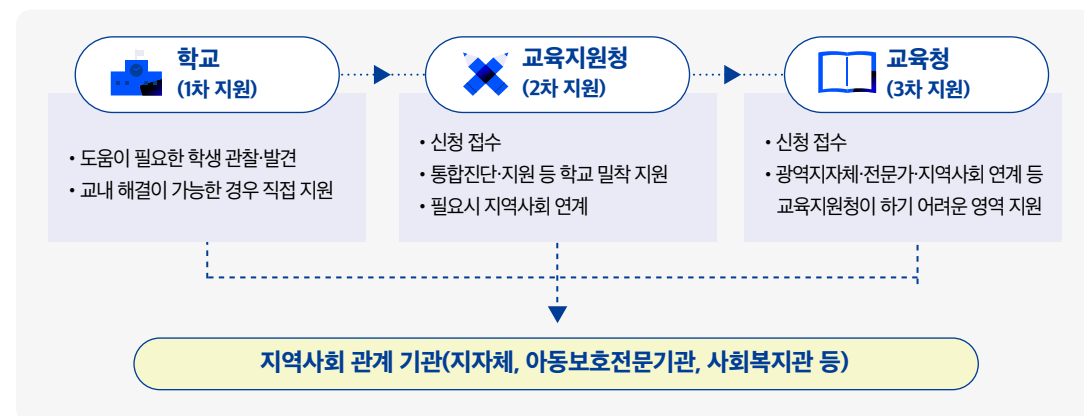
- 학령인구 감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
- 개별 사업 중심의 분절된 지원으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사후처방·지원 중심으로 문제 인식 및 조기 발견 등의 사전 예방 효과성 저하
-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 등의 인적·물적 자원 간 연계 협력체계 부족
- 교직원 1인이 관찰·진단·지원 연계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책임 과중
- 교직원 소진 방지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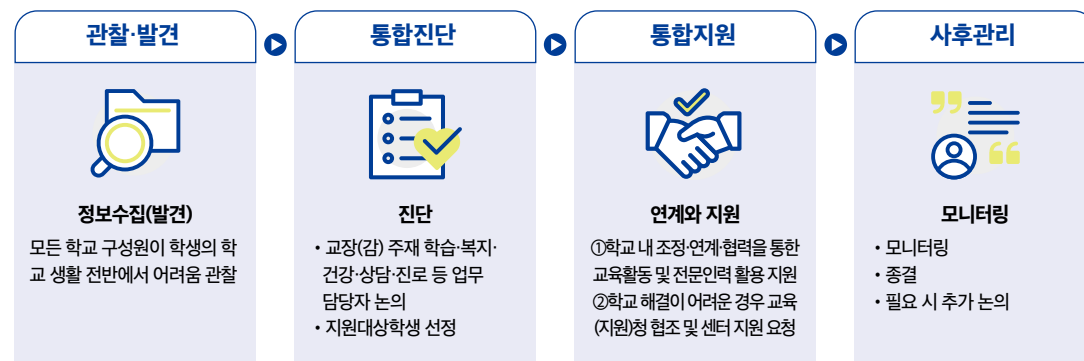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비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
목표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방향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 지역 연계 정보 연계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함께 촘촘한 3단계 학생지원망을 구축합니다.



학교 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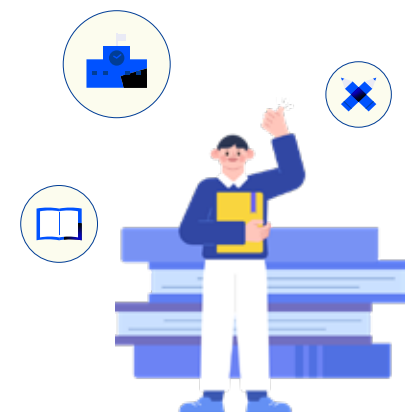
※ (1차)학교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발견·지원하고, 학교 자원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2~3차)교육(지원)청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지원합니다.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변화합니다.

	현재	개선
학생 · 학교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중복지원·사각지대 발생	사업 간 조정·연계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지원
	담임교사·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하여 학생 지원	관리자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지원
	문제가 발견된 이후 사후처방 중심 지원	학교 모든 구성원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개입
교육청 ·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내 개별 센터별 분산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총괄·조정, 접수 창구 일원화
	학교 중심 지원으로 고위급 학생 대응 한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학생 지원 강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적	지역자원 발굴·연계하여 다양한 자원 충분히 활용

경남의 모든 아이가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삶을 온전히 보듬겠습니다.

경남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따뜻한 동행을 완성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대입전형 살펴보고 준비하기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시파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아 수시로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시를 진학한다고 수능을 경시하거나,
정시를 준비한다고 내신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입 전형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안내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형별로 알려드립니다.



대입 전형의 특징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초 유지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제에 따라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수시 전형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형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수능-종합-교과-실기-논술의 순서로 선발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교과-종합-수능-실기-논술의 순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서 수능전형을 30% 이상(16개 대학은 40% 이상)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부산대, 경북대 등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학 등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 역시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교과목 이수 현황 및 성취도와 교과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정규동아리, 교내 봉사활동이 반영되므로 교내활동에서의 학교생활충실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독서활동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수업이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독서 활동은 정성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을 새롭게 신설한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최종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수업 시간을 통해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전형

대학별 선발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학교에서 치르는 지필고사의 서술형 문항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논술고사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므로, 다양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능전형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전형은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모든 영역의 수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 수,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지표, 영역별 가감점 등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 상이하여 대학별 환산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환산점수 산출을 통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마무리



향후 대입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여 각 전형 간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형만을 준비하는 전략은 다가오는 입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성적 뿐만 아니라 과목 선택의 중요성 역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계된 과목을 이수하고,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자신의 교과별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교내활동을 통해 연계, 심화, 확장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때 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픽시자전거를 아시나요?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이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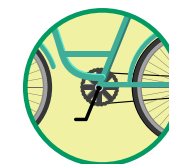
‘픽시자전거’란?

변속 장치 없이 페달과 바퀴가 직접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한 첫걸음

자전거 안전 운행 필수 요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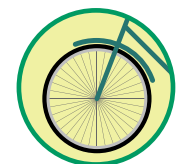
인력으로
움직이는 페달



조향장치
(핸들)



제동장치
(브레이크)



두 개 이상의
바퀴

자전거 도로 통행 방법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
-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이 원칙
-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전거의 장점

자전거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 공기를 오염 시키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
- 일상 속 이용만으로도 운동 효과



등하굣길 자전거 이용, 이렇게 실천해요.

학교 주변에서
속도를 줄이기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 유지하기



교차로나 골목에서는
주변 살피기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이렇게 멈춥니다.

픽시자전거 중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다리 힘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이런 방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제동 방법

풋브레이킹, 스키딩, 역페달링 등 다리힘에 의존한 제동 방법을 사용합니다.



풋브레이킹

발로 바닥을 끌며 감속시켜 제동



스키딩

페달을 멈추고 뒷바퀴를 바닥과 마찰



역페달링

페달을 반대로 작동하여 제동

제동 거리

제동장치가 없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동하기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 속도별 제동거리
 - 시속 10km/h 시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 5.5배 증가
 - 시속 20km/h 시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 13.5배 증가

⚠ 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모델 주행 불가!



학생의 개인 이동수단, '멋'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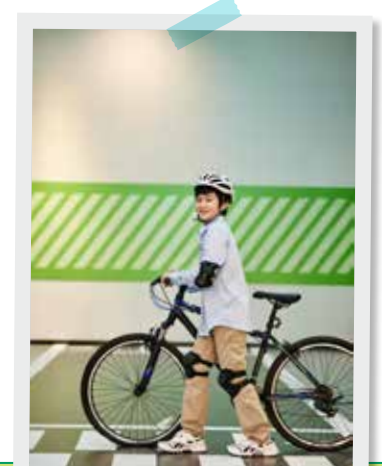
등하굣길에는 다양한 이동수단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자주 이용합니다.

우리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실천

- 학교 주변, 등하굣길에서 속도를 줄여요.
- 교차로나 골목에서는 주변을 먼저 살펴요.
-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해요.



자전거 안전은 생명,
꼭 착용하세요!



경상남도교육청의 소속기관인

예술교육원 ‘해봄’은 이름부터 다르다.

‘해본다’의 명사형. 말 그대로, 예술을 해보는 곳이다.

해의 밝음처럼 또렷하고, 봄의 기운처럼 생동하는

경험을 아이들 안에 심겠다는 뜻이 담겼다.

해봄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다.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가능성을 깨우는

공공 예술 플랫폼이다.



예술을해보는공간

해보다, 그래서 자란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왜 지금, 공교육 안에 예술교육원인가?

입시와 성적 중심 구조 속에서 예술은 종종 주변으로 밀려났다. 점수로 바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다. 창의성, 공감 능력, 협업, 해석력, 질문하는 힘. AI가 빠르게 계산하고 요약하는 시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예술은 “왜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예술교육은 감성 수업이 아니다. 사고를 확장하는 훈련이다.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이다. 해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해봄은 단순 체험 기관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모든 학생이 예

술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공교육의 전략 거점입니다.”

해봄에서 ‘해보는’ 것들

예술은 수치로 즉각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이의 성장에는 깊게 작동한다. 아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하며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체득한다. 공동 창작과 공연을 통해 책임감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기른다. 무엇보다 예술은 경쟁 속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전기지가 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표현해볼 수 있는 공간. 해봄은 그 공간을 공공의 책임으로 설계했다. 해봄의 프로그램은 이름부터 직관적이다. 나무로해봄, 흙으로해

봄, 영상제작해봄, 미디어해봄, 춤으로해봄, 레진아트해봄, 전자드럼해봄, 입체로해봄. 초등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년·학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학생상시 프로그램이다. 미술, 음악, 무용·연극, 전시·공연 등 다양한 분야를 실제 창작 활동으로 경험한다.

“해봄에서는 ‘잘하는 아이’보다 ‘해보는 아이’가 중요합니다.”

예술을해보는공간



03



- 01 예술교육원 '해봄' 관계자 인터뷰 모습
- 02 해봄예술놀이터 행사 외부 전경
- 03 해봄윈드오케스트라 공연
- 04 악기 도서관에 놓인 다양한 타악기들

함께 누리고 직접 찾아가서 해봄

해봄의 대표 행사인 '해봄예술놀이터'는 성과 발표이자 축제다. 제작해봄 체험, 전통 장난감과 킨링을 만드는 키트해봄, 학생 작품 전시, 윈드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악기 체험, 놀이 체험, 공연 이벤트까지. 한 자리에서 해봄의 모든 결과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 800명 이상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날은, 예술이 '특별 행사'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문화'임을 보여준다.

“예술은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될 때 빛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날입니다.”

해봄은 기다리지 않는다. 문화 소외 지역과 원거리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다. 학교 현장에 맞춰 재구성된 8개 프로그램은 교실 안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운영된다. 이 ‘찾아가는 예술체험’은 현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공간의 격차가 경험의 격차가 되지 않도록 예술의 접근성을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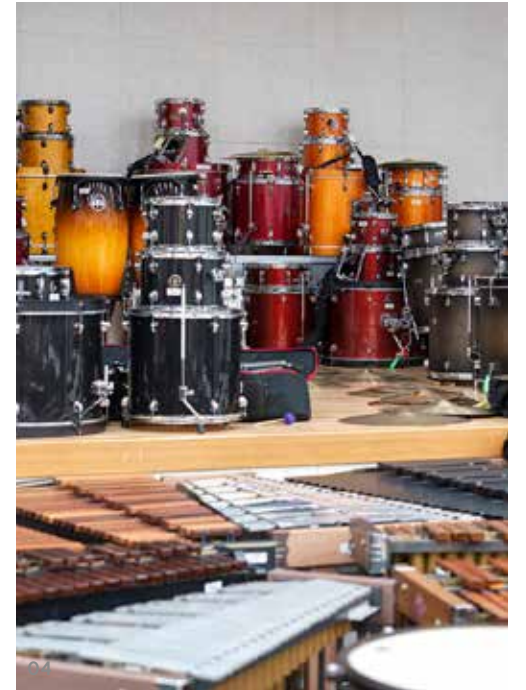
공연과 악기, 예술을 생활로 확장하다

해봄아트홀은 공연과 연수, 학교 축제까지 가능한 복합 예술공간이다. 타악 퍼포먼스, 클래식, 뮤지컬, 월드뮤직, 발레, 재즈.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장르가 연중 이어진다. 교실 밖에서 만나는 무대 경험은 아이들의 감각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한다. 예술은 관람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의 일부가 된다.

“해봄 악기도서관은 전시형 공간을 넘어 체험 중심 문화공간입니다.”

해봄 악기도서관 역시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은 악기를 직접 만지고, 소리를 내보고, 지휘자 체험까지 해본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악기 대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유휴 악기 공유 플랫폼을 통해 학교 간 자원을 연결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악기 도서관은 체험 공간이자,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이다.

예술을해보는공간



04

지역과 함께 자라는 문화 플랫폼

해봄은 교실을 넘어 지역 전체를 하나의 배움터로 확장하고 있다. 학생에게는 체험의 공간,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공간,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무대가 된다. 교육과 문화, 행정과 지역이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예술은 선순환한다. 단발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 연결의 중심에 해봄이 있다.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 사람을 깊게 만드는 힘은 여전히 경험에서 나온다. 그래서 해봄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묻는다. “해봤니?” 그리고 아이들은 답한다. “해봤어요.”

무대는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경남의 라이브 공연장

공연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다.
큰 공연장이 아니어도,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라이브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운 공연장은 소리와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한다.
배우의 숨소리와 연주자의
손끝 움직임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공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경남의 공연 공간 두 곳을 소개한다.



창원 가로수길의 소극장 펍시어터 가로수극장

창원 가로수길에 위치한 <펍시어터 가로수극장>은 연극과 공연이 이어지는 소극장이다. 기존 '창원축제 소극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은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가까워 배우의 움직임과 호흡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현재 창작극<5분 로맨스>가 절찬리 공연 중이다. 공간의 특성을 살린 무대 구성과 배우의 표정과 작은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점도 소극장 공연만의 매력이다. 창원 가로수길 중심에 자리해 접근성도 좋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 있는 거리 한가운데에서 공연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가로수극장의 장점이다. 일상의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창원 공연문화의 또 다른 무대가 되고 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작은 극장 안에 관객들이 모여들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거리는 금세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거대한 공연장이 아니어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무대는 그 자체로 충분히 특별하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460번길 11 지하층
문의 055-294-9498



대형 공연장이 아니어도
공연은 충분히 가까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작은 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연주자의 음악이 바로 앞에서 울려 퍼지는 경험.
경남 곳곳에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공연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거창한 공연이 아니어도 좋다.
가까운 무대에서 만나는 공연은 때로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거제의 인디 라이브 공연 공간 언드 (und)

거제 옥포동에 위치한 <언드>는 인디 음악 공연과 다양한 라이브 무대가 열리는 공연 공간이다. 2022년 문을 연 이후 지역과 외부의 인디 뮤지션들이 이곳을 찾아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공간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만큼 공연의 거리감은 더욱 가깝다. 연주자의 기타 소리와 보컬의 목소리가 작은 공간 안에서 그대로 전달되고, 관객은 음악과 같은 호흡으로 공연을 즐기게 된다. 공연자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기 공연뿐 아니라 기획 공연과 협업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무대가 열린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공연이지만, 공간 자체가 하나의 문화 플랫폼처럼 운영되며 지역에서 새로운 공연을 시도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가 아니어도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곳곳에 있다. 거제의 작은 공연장인 언드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소 거제시 거제대로 3734 지하 1층
인스타그램 @und_space

경남 도서관의 최초와 최고 기록

경남 교육의 역사 속
'최초'와 '최다'의 기록.
경남 도서관이 남긴
특별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오래된 도서관

진주여자고등학교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학교 도서관은 **1952년 3월 진주여자고등학교에 설치된 도서관(반개가제)**이다. 이 도서관의 설립을 계기로 현대식 건물에 마련된 학교 도서관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학교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출처: 경남교육 70년사 제2권 593p



마산시립도서관(現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1954년

공공도서관으로서 가장 먼저 설립된 마산시립도서관(현 마산도서관)은 **1954년 5월 12일 추산동 소재 시립도서관으로 개설하였다**. 이후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1963년 11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이 되었으며, 1988년 6월 30일 현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산길 12)로 신축이전하였다. 1991년 3월 마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다 장서량을 보유한 도서관

진영금병초등학교 33,108권

2025년 나이스 학교정보공시 데이터에 등록된 '학교도서관 현황(자료보유현황)'에 따르면 김해시에 있는 진영금병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은 **총 33,108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반 장서는 32,998권이고 비도서자료수는 110권이다.

*1인당 장서수 29권(전체 학생수 1,140명)



봄과 함께 펼쳐지는 이야기의 도시

밀양에서 배우는 네 가지 장면

MIRYANG

봄이 오면 도시는 색이 아니라 '이야기'로 먼저 변한다. 겨울 동안 잠잠했던 물이 다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오래된 누각은 시간의 무게를 풀 어내듯 따뜻해진다. 밀양의 봄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기억을 조용히 건넨다. 위양못의 이팝나무에서 시작해, 영남루와 밀양강 수변공원, 밀양 독립기념관, 그리고 밀양아리랑센터까지. 이 길은 자연과 역사, 예술이 서로를 비추며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흰 꽃이 내려앉은 순간

위양못 이팝나무, 자연이 알려주는 시간의 감각

밀양시 부북면에 자리한 위양못은 신라시대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저수지로, 백성을 위한다는 뜻에서 '위양지(位良池)'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연못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단연 봄이다. 4월 말에서 5월 초, 못 가장자리를 따라 심어진 이팝나무가 만개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하얀 꽃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 번지고, 가운데 자리한 정자 '완재정'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된다. 이팝꽃은 특별한 꽃이다. 가까이 보면 작고 소박하지만, 멀리서 보면 눈처럼 풍성하다. 아이들은 이곳을 걸으며 자연의 속도를 배운다. 꽃은 서두르지 않고 피고, 물은 조용히 그 시간을 담는다. 그렇게 위양못은 말없이 알려준다. 기다림의 의미와, 계절이 스스로 완성되는 방식에 대해.

강 위에 세워진 시간

영남루와 밀양강 수변공원, 도시의 기억을 걷다

밀양강을 따라 걷다 보면, 강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모습을 드러낸다. 영남루다. 조선시대 객사의 부속 누각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함께 한국 3대 누각으로 꼽히며, 2023년 국보로 재지정됐다. 영남루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대를 건넌 공간이다. 고려시대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며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다. 누각 아래로 흐르는 밀양강과 수변공원은 오늘의 밀양을 보여준다. 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존재한다. 아이들에게 영남루는 역사책 속의 건물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가 된다.



01

기억을 잇는 공간

밀양 독립기념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밀양아리랑대공원 안에는 밀양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충혼탑과 아리랑센터 등 다양한 역사·문화 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조용하다. 전시된 기록과 사진들은 특별한 영웅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름 없이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오늘의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에게 역사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02

소리로 이어지는 도시

밀양아리랑센터, 전통이 오늘을 만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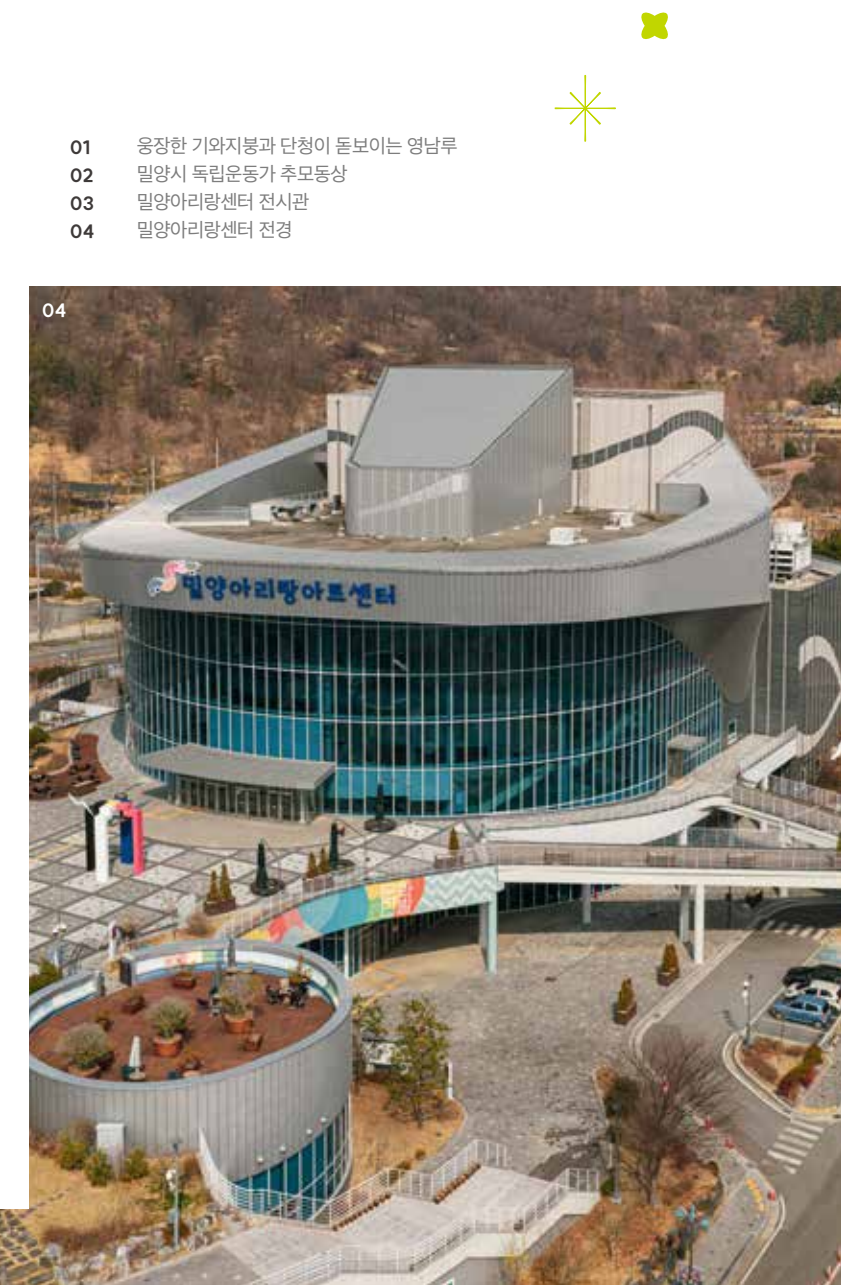
밀양아리랑센터는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밀양아리랑의 전통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로 이어진다.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무대 위의 소리와 객석의 숨결이 하나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전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

밀양에서 배우는 것

밀양의 봄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깊다. 위양못에서는 자연의 시간을 배우고, 영남루에서는 역사의 깊이를 느끼고, 독립기념관에서는 기억의 의미를 생각하고, 아리랑센터에서는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만난다. 이 도시는 말없이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밀양을 걷는다는 것은,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길 위에서, 교과서 밖의 배움을 만난다.



03



04

- 01 웅장한 기와지붕과 단청이 돋보이는 영남루
- 02 밀양시 독립운동가 추모동상
- 03 밀양아리랑센터 전시관
- 04 밀양아리랑센터 전경

WEBTOON
학교폭력예방 웹툰

사고팔 수 없는 것 3화

- 글: 그림 지유나 -



만약에 잘 되면 너도나도
개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

빛나는 화면 속에서 길을 찾는 아이들



정보의 바다에서 '나'를 지키는 시간



새 학기의 설렘이 어느덧 익숙함으로 내려앉은 4월, 교실은 아이북 화면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아이들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수행평가를 위해 자료를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아이들의 읽기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생님, 다 찾았어요!"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아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블로그 글이 띄워져 있습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나 출처의 신뢰성 보다는 '가장 빨리 눈에 띈 것'이 정답이 됩니다.

"정말 빠르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런 정보를 올렸을까?"

저의 질문에 아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검색은 문장을 이해하는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그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정답 찾기'였던 셈입니다. 화면 위의 글자를 빠르게 훑어 내려가는 눈동자는 바쁘지만 정작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의도와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은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잠시 기기를 덮게 하고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과 정보를 읽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검색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천천히 살펴보고 질문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의 관점인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읽기가 완성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빠르게 찾는 읽기를 넘어, 깊이 이해

하는 읽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말 돋보기



디지털 문해력



#1

화면 속 글자들은 왜 자꾸 흩어지는 걸까?

우리는 화면 속 글을 읽을 때 필요한 정보만 훑어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스캐닝(Scanning)' 또는 '스키밍(Skimming)'이라고 합니다. 빠른 정보 습득에는 유리하지만 이러한 읽기 방식에 익숙해질 경우 글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깊은 읽기 경험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우리말을 깊이 읽기 위한 디지털 키워드

- 팩트체크(Fact-check): 정보의 진위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사실의 근거를 확인하는 비판적 읽기의 출발점입니다.
- 필터 버블(Filter Bubble):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제공하여 편향된 세계에 갇히게 되는 현상입니다. 거품 밖의 세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2

정보를 읽는 힘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거나 기기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정보의 사실 여부와 글쓴이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입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바른 정보를 가려내어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때 디지털 세상은 지식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자신의 시선으로 이해하느냐'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 다정한 언어적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적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화면 너머의 진실을 마주하려는 성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출처의 확인: 정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은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 줍니다.
- 질문하며 읽기: "왜 이 글을 썼을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읽을 때, 정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상담소 4월 상담기록지

초등 입학 후 또래 관계, 보호자의 역할은?

이달의
상담 주제

낯가림이 많은 아이다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또래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어떤 태도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입니다.

학령기 이전과 이후의 아이 발달 변화 이해하기

먼저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시선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낯가림은 아이 자신의 안정 정서를 높이고, 불안 요인을 선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 발달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전의 유치원과 확연히 다른 변화의 시작점으로, 아이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의 정서적·인지적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지만 동시에 불안이나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즉 새로운 교실과 친구, 선생님이라는 낯선 요소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아이의 지금 상황적 특성을 이해하고, 아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 반응에 ‘공감’과 ‘지지’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성 발달과 보호자의 역할

아이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사회성’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중위 연령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 형성되는 시기적 특성을 보입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아이에게 보호자의 지지는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 아이의 사회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자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었지? 엄마는 우리 00의 마음을 이해해.”, “엄마도 처음에는 00처럼 친구들에게 먼저 말 못 했었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 해봤어?”와 같이 아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의 말을 건네면, 아이는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나눌 수 있고 동시에 변함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존재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아이에게 질서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 교문 앞의 안전지킴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아이 친구의 보호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등굣길에 위험한 행동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사회적 행동을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초등학교는 단순히 학습 능력만 향상시키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이가 평생에 걸쳐 인생의 태도로 완성해 가는 ‘사회성’을 연습하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키 크는 속도, 친구를 사귀는 속도,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는 속도 등 모든 영역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불안감이 올라오면 아이는 가장 먼저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지받았던 기억과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집’과 ‘엄마’, ‘아빠’ 등 보호자입니다. 이런 심리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불안해질 때마다 보호자는 지지와 안정을 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보호자에게도 앞으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연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충분히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는 바르고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글. 안창근

경상남도가족센터 부모코칭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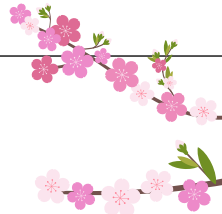


4

2026 이달의 경남교육 행사를 소개합니다

-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 김해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마산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창원도서관

일	월	화	수
			1 ● (~31일 까지) 9:00~18:00 / 경상남도 교육청 스마트도서관 / 책드림과 우리 사이 ● (~30일 까지 월~금) 10:00~15:00 / 김해체험분원 / 자연과 친구되는 유아 생태체험 ● (~30일 까지 월~금) 10:00~15:00 /진주체험분원 / 즐겁고 신나는 과학체험
5 ● (4월 매주 일 운영) 10:00~11:00 / 정글북 책오름 / 독서당 이야기 할머니	6 ● (~15일 까지) 6일 10:00~15일 10:00 /진주체험분원 / 4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사전 신청 기간	7	8 ● 16:00 / 1층 나눔방 / 사서 쌤과 함께 그림책 탐구생활
12 	13 	14 	15
19	20 ● (~22일 까지) 9:30 / 김해체험분원 / 행복한 동행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사전신청기간 ● (~22일 까지) 20일 10:00~22일 17:00 / 진주체험분원 / 재미팡팡 신나는 과학축제 사전 신청 기간	21	22 
26 	27	28 	29 ● 11:00 / 2층 지혜마루 / 수요일음악회 <춘(春)가락 콘서트> ● 15:00 / 책담 1층 해오름 / 영화 상영 <미녀와 야수>

목	금	토
2	3	4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김순영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압> ● 14:00 / 해담 1층 해2 / 체험 <토요책동산> ● (4월 매주 토 운영) 11:00 / 책담 1층 다운누리(해오름 옆) / 체험 <AR 모래놀이> ● (4월 매주 토 운영) 14:00 / 책담 2층 책고리 / 체험 <VR 자연 힐링 체험, VR 스포츠 체험> ● (4월 매주 토 운영) 15:00 / 책담 1층 누리를 / 공연 <댄싱 로봇 공연>
9 	10	11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샌드아트 <너는 어떤 씨앗이니> ● 14:00 / 2층 지혜마루 / 토토로 어서옵SHOW <최은아 재즈 코라트> ● 15:00 / 1층 세상올봄 / 성악팀 벨그란디스 콘서트 ● 9:30~16:30 / 김해체험분원 / 4월 가족나들이 토요 생태체험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지혜중심 <봄이 오는 소리>
16 	17	18 ● 16:00~17:00 / 정글북 별당 / 인형극 <파이도독을 찾아라> ● 11:00 / 1층 별빛마루 / 별빛인형극 <책과 공나무>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 지혜중심 <관악으로 떠나는 3색(色) 음악 여행> ● 15:00 / 책담 야외 / 책담 힐링 공연 - 옐로은 밴드 공연 <책 사이로 흐르는 노래, 우리 가족의플레이리스트> ● 10:00~12:00(오전), 14:00~16:00(오후) / 진주체험분원 / 4월 생각쑥쑥 토요과학체험
23	24	25 ● 14:00 / 2층 지혜마루 / 인문학 강연 <행복의 매커니즘: 나의 행복은 타인과 연결된다> ● 14:00 / 3층 무학전당 / 토요인문특강 <음식과 약이 말하는 우리의 봄 '정재훈'> ● 15:00~15:40 / 2층 지혜마루 / SHOW 지혜중심 <어린이왕자> ● 10:00 / 책담 2층 책벗 / 체험 <VR 포럼> ● 15:00 / 책담 1층 꿈뜨락 / 재능기부 힐링 공연 - Spring chamber music <클래식 실내악 공연>
30	 프로그램 안내사항 안내 사항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면의 한계로 일부 행사만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각 기관의 누리집이나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대사의 숨결 간직한 진해역

진해역은 일제강점기 군사적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광복 이후 우리 해군의 물류 거점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공간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군항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해온 진해역을 소개한다.



군항 도시의 탄생과 함께한 100년의 역사

진해역은 1926년 11월 11일 진해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일본은 1910년부터 진해를 군항 도시로 개발하며 해군기지 유지를 위해 이 역을 세웠고, 진해항과 내륙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활용했다. 광복 이후 진해역은 한국군 해군사령부의 주요 물류 길목으로 변모했다. 1961년 해병대 전용선과 일부 기업의 제품 공장 전용선이 차례로 개통되며 국방과 산업 발전에 이바

지했다. 4월 군항제 기간에 관광열차가 운행됐었는데, ‘벚꽃 마중’의 설렘을 전하는 장소로 사랑받다가 이용객 감소로 2015년 2월 1일 정기 여객 운행이 중단됐다.

유럽풍 지붕창과 목조 구조의 독특한 미학

진해역사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평 비례를 유지하면서도 사면에 수직 창을 내어 흥겨운 느낌을 주는 근대식 건축물이다. 특히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

는 지붕창(Dormer)이 설치되어 있어 전원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목조 구조에 벽체는 시멘트로 마감되었으며, 지붕은 전·후면에 ‘ㄷ’자 모양의 경사를 이룬 형태다. 군인과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광장이 넓게 조성되었고, 대합실과 이어진 노천 출입구 역시 무기 등이 오가기 편리하도록 넓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진해역은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근대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5년 9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26년 신축도면 기준으로 정밀 보수 문화유산 가치 높인다

현재 창원시가 경남도·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진해역 보수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사에는 국비 3억 4500만 원과 도·시·비 각 1억 725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1926년 당시 ‘진해역 신축도면’을 기준으로 삼아 지붕과 창문을 해체·재설치하고 외벽을 보수하는 등 원형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문화유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준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진해우체국 등 인근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한 근대 역사 재생·관광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글 백지혜 참고 국가유산청·창원시

100년의 세월을 멈춰 세운 아담한 역사(驛舍)

오랜만에 진해역에 직접 가봤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는 말의 무게감답게 지금도 손에 잡힐 것만 같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100년의 세월을 품은 아담한 역사는 유럽이 연상되는 노란색 외벽 때문인지 밝고 경쾌한 인상이 들었고, 굳이 열차를 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와 평경장이 역사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하니, 2015년 진해역이 문을 닫기 전 모습은 영화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진해역에 기차가 다니던 시절, 특히 군항제 기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지금은 보수공사에 들어간 상태라 주변이 소란하지만, 축제 때의 분주함은 매년 반복됐다. 근처에 있는 여좌천 로망스 다리를 둘러본 뒤 진해역 광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같은 장소가 계절과 용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된 장소가 가진 힘이 느껴진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과거의 모습을 진열장에 고이 모서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서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진해역에서 기차를 탈 수는 없지만, 진해역이 지나온 시간과 지역적 분위기, 그리고 그곳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추억을 읽어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역사 앞에 잠깐 멈춰 서본다. 지역의 ‘역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풍경이라는 것이 체감된다. 이번 군항제에도 여좌천과 함께 진해역에 들러, 또 하나의 봄 기록을 남겨봐야겠다.



이연경 명예기자(창원시)



아이좋아 2-3월 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2월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원찬희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깨끗하게 씻고 이불 속
에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배순옥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나의 취
미인 캘리그라피를 써내려가는 시간이되면 행
복이 찾아오는것 같아요.

이승민

세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면서 아이들 웃
는 모습 보는게 좋아요

한영덕

잠들기 전에 하루에 일과를 일기에 정리하는
시간

김지연

퇴근 후 집에서 좋아하는 책 읽으며 힐링하는
시간이요. 바쁜 하루 마무리하며 나만의 세계
에 빠져드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3월

무언가 열정적으로
도전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박유화

한 때 제과제빵에 빠져서 잠자는 시간도 줄이
면서 빵을 만들었어요

김정현

1분씩 매일 플랭크를 늘려가는 도전을 하고 있
어요. 처음에는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
어요.

손정대

강단에 서서 강의했을때

조진령

전공 공부 외에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을 준비하며 밤을 새우는 경
험, 그 결과물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가슴이 뛰더라고요.

조수빈

주기적으로 테니스 나갈 때!

- 예고편 댓글 이벤트 당첨자 다섯 분에게는 개별 연락드렸습니다.

매달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른쪽의 쿼알코드를 통해 예고편 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4월 호 예고편 영상



2026년 4월 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4월 호 웹진을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요즘, 교육] 윤준일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객관식)

- ① 학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람
- ②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
- ③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
- ④ 시험 성적을 높이는 사람

2. [경남교육 체험기관] 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객관식)

- ① 예술을 연구하는 기관
- ② 예술을 시험 보는 기관
- ③ 예술을 직접 해보는 곳
- ④ 예술을 전시하는 박물관

3. [경남교육 기네스] 학교도서관 장서량이 가장 많은 학교로
소개된 학교는 어디일까요?(주관식)

4. [즐겁지 아니한가] 이선빈 학생이 작년에 수상한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주관식)

4월 호 독자퀴즈 정답자는 5월 호에 발표됩니다.

2, 3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2월 호 정답 1. ③ 학교폭력 전담 업무 2. ④ 지금 이 순간이 매일 감사하고 행복한 것
3. 메탈 스캐너 4. 심폐소생술
- 2월 호 당첨자 남해 박정옥 / 고성 서민정 / 창원 이지혜
- 3월 호 정답 1. ③ 칠남매 어울림 교육 2. ② 장미 3. 보물찾기 4. 아쟁
- 3월 호 당첨자 창원풍호초 백가운 / 사천용현초 김빛나 / 고성장목예술중 최고은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6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QR코드를 통해 답안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 문의 055-278-1788

* 유의사항 :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정답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답안작성 QR코드



경남교육 소식을 다양하게 즐겨요!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에서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육 정책을 만나보세요.
경남교육 SNS를 팔로우 하시면 주요 소식과 행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경남교육 소식지
신청 및 해지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경남특수교육이 함께합니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경남특수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갑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2026

2026년 달라지는 경남특수교육

-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 및 통합교육 모델학교 운영
- 개별화교육계획 및 진로학업설계 지원 강화
-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 예정
- 특수교육대상유아 이음교육 시범 운영

경남 특수교육 지원체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치료지원, 순회교육, 학부모 상담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연수 및 교육 지원을 통한 경남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전환교육·시청각장애 등 특성별
거점센터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